

북한 언어문화의 변모 양상과 전망

전 영 선 || 건국대

북한 언어문화의 변화양상과 전망

전 영 선 (건국대학교)

I. 서 론

이 글의 목적은 북한 언어문화의 변화양상과 전망을 살피는 데 있다. 2015년으로 광복 70년이 지났다. 광복 70년의 시간은 한편으로 분단 70년을 의미한다. 남북이 문화적 통합의 지점을 만들지 못하고 70년의 시간을 분단 상태에서 지나왔다. 분단 70년의 시간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정치, 경제적인 차이와 함께 이념과 제도가 낳은 문화 분단의 현상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남북 분단의 흔적은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¹⁾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언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어는 일상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차이를 각인시키는 출발지였다. 남북한의 언어가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느끼는 차이가 크다.²⁾ 언어가 문화갈등과 연결되는 것은 일상에

1)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문제는 초기 경제적인 문제를 거치면서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으로 올수록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문화적인 어려움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 연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문화 부부’의 사례연구이다. ‘이문화 부부’란 배우자가 남북에서 성장하여 가정을 이룬 부부를 의미한다. 김현경,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적응에 관한 연구 - 남한주민과 결혼한 북한출신 배우자의 부부 적응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5권 1호(한국가족관계학회, 2010), 이민영,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통일이야기-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결혼 생활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한국학술정보, 2007), 최효정, 「구술생애사로 본 ‘남북부부’의 결혼생활」(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등이 있다.

2) “제가 와서 1년 동안은 너무 어지러워서 말을 하면 한국어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너무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문서를 받는데, 제가 한동안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내용을 봐야 했어요. 정말 진짜 고생 엄청 했어요.”(H, 인터뷰 중에서)

서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언어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모든 언어행위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된다. 즉 언어는 정치적 행위로서 발화자의 힘과 상대에 대한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언어 소통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화 속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³⁾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언어 자체의 생소함과 함께 사회 행위로서 발화자의 의도를 해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더욱 큰 어려움은 언어 자체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언어문화의 문제도 크다. 언어는 젠더 문제와 함께 남북 주민의 소통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다. 남한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예상한 북한이탈주민은 거의 없다. 남북의 언어는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 언어의 차이는 해결 가능한 지역적인 차이 정도로 인식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언어 차이는 정착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⁴⁾ 외래어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언어에 대한 태도, 언어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남북의 언어가 사회에서 놓인 위치, 언어에 대한 인식과 접근에서 차이 나기 때문이다.⁵⁾

언어는 남북 분단이 만들어낸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언어문화를 살펴보고, 전망을 조감하는 일은 남북 문화의 통일을 준비하는 필수적인 과제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사례와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북한 언어문화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전망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북의 언어문화가 소통의 지점으로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

3) “실제로 텍스트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컨텍스트는 재구성된다. 그리고 텍스트는 컨텍스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컨텍스트와 동일한 지평 위에 존재한다.” 조지형, 『‘언어로의 전환’과 새로운 지성사』,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1998, 212쪽.

4)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하나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교육은 약 30시간 정도의 정규프로그램과 주2회 정도 1시간씩 진행되는 선택프로그램으로서 상담프로그램이 있다. 남한 사회 정착에 필요한 생활언어를 익히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상에서 접하는 언어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언어교육으로는 효과를 높이는 어렵다.

5) 남북의 언어학 연구는 조선어학회가 1933년에 발표한 ‘한글마춤법통일안’으로부터 시작한다. 남북한 분단 후에도 별다른 정책 없이 ‘한글마춤법통일안’을 사용하였다. 이후 1948년 ‘조선어 신철자법’을 제정하면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언어정책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1966년 6월의 『조선어규범집』이다. 김두봉에 의해 주도되었던 언어정책이 1966년 6월의 『조선어규범집』 이후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한 언어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조오현·김용경·박동근, 『남북한 언어의 이해』(역락, 2003), 참고.

II. 북한의 언어관

1. 혁명수단으로서 언어

북한의 언어학은 사회과학의 영역이다. 북한에서 언어학 연구의 출발이 된 어문학연구소 역시 1952년 12월 1일 과학원이 처음 창설되었을 때에도 산하기관으로 발족하였다.⁶⁾ 언어를 사회과학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북한의 언어학은 언어의 의사소통보다는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언어는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언어에 대한 기본 시각이다. 언어 없이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과학기술을 배우거나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언어는 민족적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으로 인식하고 있다. 언어는 민족의 형성과 발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민족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 한다고 본다.⁷⁾ 언어에 대한 관심도 의사소통의 기능보다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 즉 언어와 역사와의 관계, 그리고 언어와 사고가 사회적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⁸⁾

참다운 애국자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오직 공산주의자들만이 자기 나라 말을 참으로 사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인 우리는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을 살리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족적 관심을 가진 조선사람치고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이 없어져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⁹⁾

언어가 혁명과 건설의 도구로서 복무하기에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조선의 혁명에 맞는 언어생활이다. 즉 ‘고유한 우리말을 적극 살려 쓰는 사람이 유식하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이 높은 사람’이며, 이처럼 ‘자기 민족의 언어를 사랑하는 것

6) 1963년 말 사회과학원이 분리되어 나오면서 언어학연구소와 주체문학연구소가 분리하여 독립되었다.

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 “언어는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하나이며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며 문화의 민족적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8) 조오현·김용경·박동근, 『남북한 언어의 이해』(역락, 2003), 30-31쪽.

9)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 -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1966년 5월 14일.

이 곧 애국자이며, 공산주의자'라고 하여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⁰⁾ 북한은 1949년 초등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면서 한자 사용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한글전용을 실시하였다. 한글전용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교과서와 공문서 등의 발간물에서 일체의 한자 사용이 금지되었다. 1949년 이후 숫자를 제외한 한글전용으로 발간되던 노동신문은 1956년 4월 16일 한글전용, 전면 가로쓰기를 실시하였다.



2. 민족상징으로서 언어

북한의 언어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민족어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1966년 5월 14일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인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에서 김일성은 표준어로 사용하는 서울말은 ‘남존여비사상 썩어빠진 부르주아적 생활이 지배하는 말’, ‘고유한 우리말은 얼마 없고 영어, 일본말 한자어가 섞인 잡탕말’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꽃피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말을 표준어로 삼을 것을 지시한다.

10) 북한의 언어학 연구를 주도한 것은 1947년 2월 인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창립된 조선어문연구회이다. 조선어문연구회는 어학 연구의 모태가 된 단체로서 1946년 7월 민간단체로 출범하였다. 이후 1947년 2월 인민위원회 제175호 결정으로 개편하였다가 다시 1948년 10월 2일 내각 제4차 회의에서 내각결정 제10호로 교육성에 조선어문연구회 설치를 결의하면서 공식적인 기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조선어문연구회는 1949년 3월부터 월간으로 『조선어연구』를 창간한 데 이어 1949년 12월부터 『조선어문법』을 발간하면서 언어학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1952년 과학원이 창립되어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가 이를 이어받았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 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도 서울말을 표준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말을 《표준어》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쓰는 것이 낫습니다.¹¹⁾

문화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 체계를 대신하여 별도의 언어 체계를 확립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평양말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민족어의 모든 말소리와 각이한(서로 다른) 지역의 방언들의 말소리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다른 나라 말의 발음도 원만히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어 표기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셋째, 어휘구성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넷째,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대상과 현상들을 전부 민족글자로 표기하는 등의 언어적 우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표준어와는 다른 평양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어 체계를 수립하였다.¹²⁾

3. 단일계통의 민족 언어

북한의 언어정책에서 강조하는 가장 큰 특징은 조선어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단일계통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에 흠어져 살던 우리 선조들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같은 언어를 사용했었는데, BC 3천여 년 초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에 의해 평양을 중심으로 첫 노예 소유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지면서 우리

11)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 -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1966년 5월 14일.

12) 문화어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력사’, ‘녀자’, ‘료리사’, ‘락원’, ‘룡성맥주’, ‘로인’ 등과 같이 발음상에서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한자어의 어두에서 ‘ㄱ’과 ‘ㄴ’을 원음대로 적는다. 성씨의 경우에도 ‘리’를 표기한다. 둘째, ‘원썩’, ‘뚝’과 같이 된소리가 많다. 화법에서는 문장을 짧게 나누어 발음을 분명하게 하면서도 억양이 있어 강한 효과를 낸다. 특히 초두음이라고 하여 문장의 첫소리에 강한 악센트를 준다. 셋째, 접사의 결합과 어근 합성에 의한 조어가 많으며 ‘-할 데 대하여’나 ‘-할 대신에’ 등과 같은 특수구문이 많다는 점이다.

말은 그 이전의 단순한 종족어의 테두리를 벗어나 당당한 ‘민족어’로 발전했으며, 첫 민족글자인 ‘신지 글자’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말과 글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은 적어도 수만 년 전에 형성된 이후 다른 나라의 말들과 통합되거나 갈라진 적이 없이 한 갈래로만 발전하면서 단일한 조선말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즉 우리말은 고대부터 고조선, 부여, 마한, 진한, 변한 등의 여러 종족어들과 국가어들로 갈라져 쓰이다가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원시시기나 고대시기의 말을 분석해 보아도 비슷한 갈래나 다른 갈래의 말이 섞여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로 갈라져 있었으나 지역적 방언의 차이였지 계통은 하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언어의 단일성은 일제시대에도 굳건히 지켜지고 보존되어 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구려 중심의 언어 발전을 주장하면서 삼국시기의 역사가 고구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강조한다. ‘고구려어 중심설’이란 고구려 말이 우리말의 원류로서 고조선 시기의 조선말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켰으며 조선말 발전에서 원줄기를 이루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Ⅲ. 북한의 언어정책과 언어문화

1. 북한의 언어정책

1) 언어의 정치성

말다듬기 사업을 통해 민족어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장려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한의 언어가 오염된 언어로서 민족적 자주성이 없다는 시각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언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민족적 문화를 지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울은 다른 나라 말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외래어의 ‘홍수지대’로 전변되었다. 서울말은 영어와 일본어, 한자어가 뒤섞인 잡탕말로 변질되었으며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과 고유성이 점차 사라진 말로 되었다. 각종 간판이나 상품광고 같은 것도 다른 나라 말로 써붙이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도 영어나 일본어를 뒤섞어 하는 것이 유행되고 있다. 심지어 야비하고 비속한 여러 가지 말마디들과 유행어들이 망탕 쓰이고 있는 형편이다.¹³⁾

언어에 대한 기본 인식은 김정일 시대에서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다. 언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는 전투인 것이다.

낡은 언어 잔재를 뿌리 뽑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제국주의만이 좋아할 것이며, ‘지난날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의 본을 따서 그런 말을 망탕(마구)되도록 외운다면 그것이 훗날 유래가 희박해지고 습관적으로 고정돼 낡은 언어 잔재가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 깊숙이 끼어들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힘들고 파악 없는(알기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들, 일제식민지 통치의 잔재인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말 찌꺼기들, 지난날 봉건통치배들을 내세웠거나 외래침략자들이 남긴 고장어름들, 비속하고 비문화적인 말을 비롯하여 우리말의 주체성, 민족성을 좀 먹고 인민들의 사상의식과 문화정서 교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어휘들’이 정리되었고 인민성의 원칙에 따라서 알기 쉽고 편한 말로 다듬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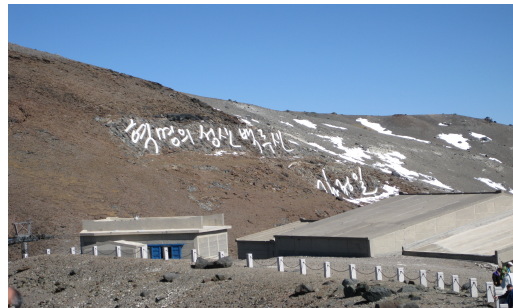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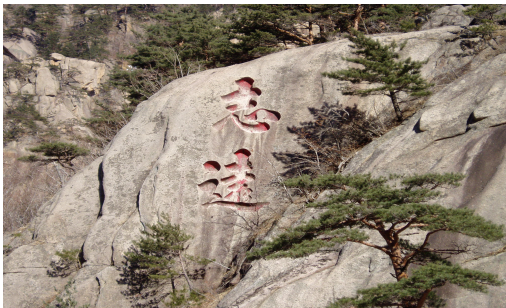
언어는 곧 제국주의 침략의 다른 수단의 하나로, 제국주의자들은 각종 선전수단과 상

13) 최정후, 「민족어발전에 관한 이론」『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언어학』(사회과학출판사, 1996), 54쪽.

품광고를 통해 퇴폐적인 부르주아 생활방식과 자유화의 독소를 우리 내부에 유포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이자 곧 민족이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해 나가는 것이 민족어문제를 빛나게 해결하는 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는 것이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확고한 립장이다. 우리 민족어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무엇보다도 우리말과 글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데 있다.¹⁴⁾

이처럼 조선어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 표현 하나라도 분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제국주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는’ 것 밖에 되지 않기에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낯은 언어 잔재 요소를 빠짐없이 찾아내 고유한 우리말로 정리하며 새로운 말들이 언어생활 속에 고착되도록 의식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평양문화어는 민족어로서 우수한 요소들을 갖춘 언어로서 평양문화어를 기준으로 ‘언어생활을 진행해 나갈 때 우리 말의 순결성과 주체성이 고수되고 민족적 특성도 살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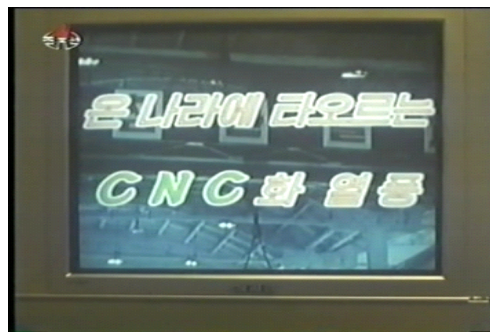
14) 「로동신문」, “민족어를 빛내이는 위대한 령도”, 2000년 5월 22일.

2) 언어의 민족성

북한은 문화어가 제정된 1960년대 이래 표준어를 ‘문화어’ 혹은 ‘평양문화어’라고 표현하였다. 문화어가 ‘문화적으로 다듬어진 우리 민족어의 최고형태’로 규정되면서 문화어를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하여 말다듬기 사업을 지시한다. ‘말다듬기 사업’은 정부원산하인 ‘국어사정위원회’에서 주관하였는데,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의 의학·약학 분과위원회, 일반용어 분과위원회 등 18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말다듬기 사업을 전개하였다. 말다듬기 사업의 주요 원칙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말다듬기 사업을 통해 강조한 것은 우리말 사용이었다. 정치용어를 제외하고는 한자어는 한글 고유어로 대체하고, 고유어가 없을 때에는 풀이말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자어 중에서 이미 우리말로 굳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래어는 고유어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언어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북한에서도 최근 들어 국제공용어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¹⁵⁾ 과학기술용어 및 대중화된 한자어·외래어는 그대로 사용한다. 외래어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 발음을 따르도록 하였다.¹⁶⁾

북한의 우리말 중심 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외래어로 인한 어려움을 적응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로 꼽는다.



15) 1990년대 국제공용어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국제공용어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1997년 1월 김정일이 태권도 경기에서 ‘태권’, ‘시작’ 등의 우리말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국제체육 공용어를 잘 살려 쓸 데 대해 가르’쳤다고 한다.

16) 최효정, 「구술생애사로 본 ‘남북부부’의 결혼생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64쪽: “남북부부의 결혼생활에서 언어습관의 차이에 따른 긴장도 있었다. 같은 한국말이 뭐가 그리 다르랴 싶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한국인의 언어습관에 익숙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언어의 인민성

김정일은 1977년 12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글을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쓰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중, 글쓰기에 대한 원칙과 기풍에서 인민성의 원칙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글을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쓰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글은 착취사회에 서처럼 극소수의 착취자들과 중산층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에게 복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글이 글을 위한 글, 지식인들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인민대중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양성하여 놓았지만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자면 일정한 시일이 걸려야 합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일반지식 수준에서도 아직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글을 전문가들이나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볼 수 있게 쓰지 말고 누구나 다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야 합니다.¹⁷⁾

글쓰기에 적용된 인민성의 원칙은 간단히 말하자면 인민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이다. 글쓰기에서 인민성의 원칙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출판보도물이 갖는 선전, 선동의 매체적 특성과 교양의 기능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출판보도물이 대중을 중심으로 한 사상 교양의 목적 하에서 만들어진다. 그런 만큼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쓴다는 것은 인민의 교양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당의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인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장과 어투를 써야 한다. 인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은 일체의 한문투가 배제되고 짧은 글이다.

언어사용에 있어서 ‘뜻이 모호하거나 발음이 까다로운 말’, ‘군더더기가 많으면서도 복잡하고 긴 문장’, ‘외래어에 의한 단어 조성 등 대중이 이해하기 힘든 어휘’의 사용은 적극적으로 삼가고 있다. 일반 대중이 알아듣기 힘든 어투나 긴 글은 선전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인민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신문이나 출판물에서 과학, 문화, 예술, 근로자들의 문예생활에 대해서도 취급하고 각종 문예작품 등 인민 교육에 필요한 사실들을 짧고 재미있게 써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7) 김정일, 「글을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쓰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7년 12월 12일.



4) 언어의 실용성

북한에서 한자교육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정책적으로는 고유어 사용이 강조되면서 한자 교육은 위축되었다. 또한 언어의 통속성이 강조되면서 한자어가 배척되었다.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한자 어근이 배척되면서 한자 사용은 금기시 되었다.¹⁸⁾

한자 사용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교과과정에서 한문교육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중학교(우리의 중고등학교)에서 한문을 배우는데, 중학교까지 기본 한자 2,000자, 대학까지 1,000자를 추가하여 익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이나 사범대학 내 어문학부와 역사학부 1~2학년에서 한문 강의를 하고 있다.¹⁹⁾

북한 한문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시를 배우거나 사서삼경과 같은 경전이나 문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이나 상중하 같이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자를 중심으로 생활이나 사상학습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배운다. 한문은 한문으로 이루어진 경전이나 한시, 소설 같은 한문과 관련한 지

18) 김일성,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1964년 1월 3일 :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전진하는데 따라 우리말의 어휘도 더 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단어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 나오는 말들은 우리 말 어근에 따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단어체계를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체계로 하여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는 우리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무들은 우리 말 어근이 얼마나 되고 한자어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여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 어근이 적기때문에 자꾸 한자어가 들어오지나 않는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말 어근만 가지고 안 된다면 딴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은 한 우리는 우리 말 어근으로 조선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19) 북한의 언어생활에 대한 개관적인 이해는 전영선, 『다시 고쳐 쓴 북한의 사회와 문화』(도서출판 역락, 2006) ‘제9부 언어생활’ 참조.

식이기보다는 한자를 익히고, 생활에 응용하는 것이 중심이다. 이러한 한문 교육의 방향은 한문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리말을 옳게 다듬어 쓰고자 하여도 한문을 알아야 하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고자 하여도 한문을 알아야 합니다. 한문 공부를 잘하는 것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한문을 배우는것은 우리말을 적극 발전시키고 민족문화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며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 더 잘 이바지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 있다.²⁰⁾

북한의 한문 교과서는 남한과 비슷하게 글자 생성원리, 소리와 뜻 익히기, 부수글자 익히기, 같은 한자가 사용된 단어 만들기, 한글을 한자로 옮기기, 한자읽기, 한자 쓰기 등을 중심으로 본문, 해석,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북한 언어문화의 특성

1) 명시성 강조

북한 언어문화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언어의 명시성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에둘러 표현하기보다는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한다. 상대방이 다소 듣기 거북한 내용이라고 해도 분명하게 지적한다.

20) 「머리말」『한문 중학교 1』(교육도서출판사, 2002).

이해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북한 사람들은 정말 직설적이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북한에 있으면서 매주 생활비판 문화가 있었고, 그래서 비판적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일상생활이었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하려는 말도 예둘러 이야기하는데 직설적으로 말하는 북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해요. 탈북자들은 본심이 아닌데 남한 사람들은 공격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중에서)

‘남한말 그 숨은 의미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한번 밥 먹어요.’ 그러면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꼭 밥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왜 한국사람들 거짓말하냐고 이렇게 받아들이 정도거든요.²¹⁾

남북한 주민의 언어 문제에 대한 갈등에서도 남북 언어문화의 차이가 드러난다.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갖는 불만의 내용은 주로 언어 에티켓에 관한 것이다. ‘예의 없다’, ‘무례하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에 대해 갖는 불만의 대부분은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언어의 명시성을 강조하고, 남한은 언어의 예절을 강조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주민들이 예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해한다. 남한 주민이 ‘밥 한번 먹자’고 말하였다면 ‘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밥’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 ‘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응 그래 다시 통화하자, 전화할게’라고 하였다면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전화기 앞에서 기다린다.

남북의 언어 차이는 곧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에 대한 인식으로 전이된다.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서슴없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당황해 한다.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생각한다.

2) 직접 화법 중심

북한 주민은 일반적으로 직접 화법을 쓰면서 간접적인 경험도 직접적인 경험인 것처럼 말한다.

21) 정진아 외, 「기획좌담 : 남북 공통성의 이론과 실제」, 『통일인문학논총』 제53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17쪽.

만나서 면담을 하실 때 꼭 고려해 두어야 할 게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아까 ‘직접화법을 쓴다’라고 했죠. 들은 적이 있다.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직접화법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써 놓은 북한 책을 읽고 그것을 자기 걸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오류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을 많이 만나 시게 될 터인데 만나시면 질문 끝에 꼭 한번씩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봤느냐를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책에서 읽었느냐, 어디의 책에서 읽었느냐, 소문은 어디에서 들었느냐, 이런 확인 작업을 좀 해주셔야지 오류를 줄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²²⁾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처럼 직접 말한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써 놓은 북한 책을 읽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언어 화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명령어 중심의 언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언어에서 명령형이 많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북한 문화의 특성이 언어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권위를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특성이 일상적으로 작동한다. 북한 체제가 최고지도자의 언어에 절대적 권위가 부여되고, 당의 명령은 절대성과 무조건성을 갖는다. 말다듬기 사업을 하면서도 정치용어는 예외로 하였다. 정치용어는 사상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한자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 한자어라 할지라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북한에서 정치용어를 사용하는 계층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층으로 제한된다. 권력 관계가 그대로 언어에 반영된 것이다. 일체의 반론이 불가능한 사회에서 언어 역시 명령형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²³⁾

22) 정진아 외, 「기획좌담 : 남북 공통성의 이론과 실제」, 『통일인문학논총』 제53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52쪽.

23) 김혜숙, 「여성주의와 치유의 인문학 : 탈북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세계인문학포럼, 2012, 205쪽 : “조명숙 교감은 북한인을 규정하는 세 종류의 문화를 언급하였다. 첫 번째는 가부장 유교문화이다. 아버지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적 위계를 확립시키기 위해 유교 가부장문화는 북한사회 안에서 매우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문화는 군사문화이다. 군사문화는 매우 직설적이고 극단적 화법을 북한화법으로 정착시켰으며, 죽

3. 북한 대중문화 속의 언어문화

북한에서는 언어 사용에 대한 교양사업의 일환으로 교양물이나 방송을 통해 올바른 언어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악화된 청소년들의 도덕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언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언어 현상을 짐작할 수 있는 방송물 속의 언어문화 현상은 다음과 같다.

1) 외래어 사용 자제 : 〈버릇탓인가?〉

익히 알려진 대로 북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을 강조한다. <버릇탓인가?>는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자는 주제의 청소년 영화이다. 2011년 9월에 방영된 20분 길이의 교양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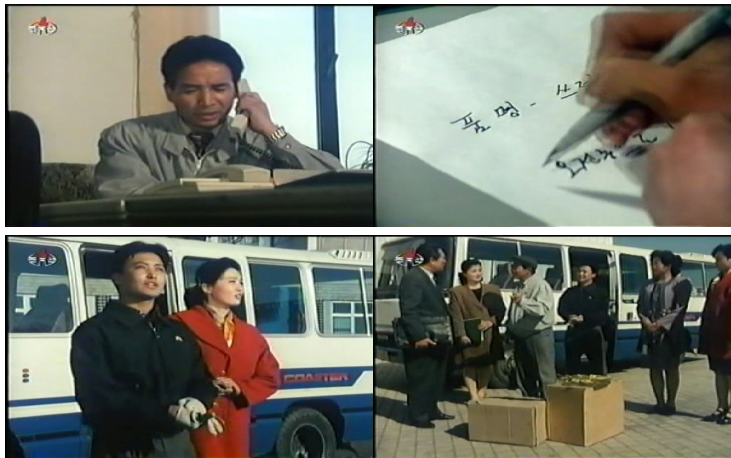
연구소 자재과장인 주인공은 평소 외래어(일본어)를 사용하는 버릇이 있었다. 어느 날 연구소 소장과 함께 출근하다 소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충고를 받았다. 하지만 소장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자재과장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직장에서 외래어를 함부로 사용하였다. 자재과장은 직원들의 실내화가 변변치 않은 것을 보고는 자재구매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는 실내화를 구해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자재과장은 ‘실내화’라고 해도 될 것을 ‘쓰레빠’라고 하였다. 오전 중으로 ‘쓰레빠’를 210개 구매하도록 하였다. 그러고는 운송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쓰레빠’를 구매해서 오면서 ‘로타리’에서 자기 부인을 만나고 오라고 부탁도 하였다.

하지만 직원들은 자재과장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직원들은 ‘쓰레빠’를 ‘쓰레박’으로 알아들었다. 그리고 ‘로타리’는 ‘놀이터’로 알아들었다. 뒤늦게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자재과장은 급하게 구매담당직원을 찾았다. ‘실내화’ 대신에 ‘쓰레박’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찾았지만 구매담당직원은 ‘쓰레박’을 구매하러 가고 찾을 수 없었다. 부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도 지킬 수 없었다. 부인은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자재과장은 로타리에서 찾았으니 만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였다. 한바탕 소동이 있는 다음에야 자재과장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할 것을 다짐하였다.

기 아니면 살기 식의 생존양식을 만들었다. 군사문화 안에서 사람들은 관용의 가치를 익히기 보다는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는 극한상황의 가치관 하에 잘못을 저질러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가는 일상적 태도를 습관화하였다. 이런 태도는 한국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뻔뻔한’ 태도로 간주되는 것으로, 탈북자들의 소외를 가중시키고 있다.”

외래어 사용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보수적이다. 언어를 민족의 상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어를 제정한 이후 말다듬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말 사용을 강조한 것도 민족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언어정책에서 차이가 생겼다. 북한에서도 외래어 사용이 늘어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 사이에 교류가 활발해지고, 정보산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외래어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외래어를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 위치에 맞는 바른 언어 : 〈과장이 된 후에〉

〈과장이 된 후에〉는 텔레비존극창작단에서 제작한 올바른 언어 사용을 주제로 한 10분 길이의 텔레비전 토막극이다. 주인공은 회사의 자재과장이다. 자재과장이 된 주인공은 직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부원들에게 ‘야’, ‘여보’, ‘아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과장은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자 부르는 호칭이었지만 직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자재과에 영실이라는 직원이 새로 왔다. 과장은 새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회의시간이 되자 ‘우리 아이들에게 역 앞으로 나가 달라’고 전화해 달라고 부탁한다. 자재과장은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역 앞으로 가라고 부탁한 것이었는데, 새로 온 직원은 과장의 언어습관을 몰랐다. 그래서 자재과장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역 앞’으로 오라는 말을 전했다. 자재과장의 부인은 전화를 받고는 시어른이 오셔서 역으로 마중 나오라는 것으로 알고 아이들과 함께 역으로 나갔다.

한편 그 시간 기차역에는 한 사람이 자재과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재과장에게 자재를 전달하려고 약속하였는데, 자재과장이나 직원이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사실도 모르고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 온 자재과장은 깜짝 놀랐다. 직원들이 역으로 나가지 않고, 탁구를 치고 있었다. 자재과장은 당황해 하면서 서둘러 자재과 직원들과 함께 역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기차는 이미 떠났고, 자재를 받을 수는 없었다. 화가 난 과장은 영실을 혼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언어 습관으로 인해 일어난 소동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다짐하였다.



3) 직장에서의 언어 예절 : 〈그 동무가 온 후〉

〈그 동무가 온 후〉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흥단창작단에서 1989년에 제작한 20분 짜리 예술영화로 2012년 11월에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었다. 조직생활에서는 서로가 예의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집단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토막극이다.

통계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계획과는 언제나 조용하였다. 과장과 혜숙, 영선, 복실은 복잡하고 예민한 통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였다.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계획과는 언제나 조용하고 화기애애하였다. 계획과에 새로 오게 된 문철은 안하무인이었다. 옆에서 사람들이 사무를 보고 있는데도 큰 소리로 통화하면서 분위기를 망쳤다. 급기야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반성하였다.



4) 친구 사이의 언어 예절 : <레절 없는 청년>

<레절 없는 청년>은 예절을 잘 지켜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15분 길이의 교양물로 2012년 10월에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었다. 주인공 영달은 장소를 불문하고 부인을 부를 때마다 ‘야!’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 영달이 병원에 갔다가 병원과장이 된 친구를 만났다. 영달은 친구를 보자마자 직원들도 있는데도 별명을 함부로 부르면서 코를 잡아당겼다. 친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받았다.



5) 전화예절 : 〈병은 내가 걸렸어〉, 〈통화중〉, 〈전화소동〉

<병은 내가 걸렸어>는 전화예절을 잘 지키자는 것을 주제로 2006년 텔레비죤극창작단에서 제작한 8분 길이의 텔레비전 토막극으로 2011년 8월에 방영되기도 하였다. 아들이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 버렸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태도에 단단히 화가났다. 아버지는 아들의 버릇을 고쳐주고자 다시 아들 집으로 전화를 했다. 아들이 전화를 받자 ‘선규 선생 집입니까?’하면서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였다. 아버지가 분명한데, 존댓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아버지가 ‘뇌혈전’ 때문에 정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걱정이 된 아들과 며느리는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가 계속 아들을 선생님이라 부르자 아들은 아버지가 틀림없이 병에 걸렸다면서 병원에 가자고 하였다. 이에 아버지는 정색을 하면서 ‘병은 내가 걸린 것이 아니라 내가 걸렸어’하면서 ‘전화는 상대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전화를 똑바로 받으라고 충고하였다. 아들은 자기의 전화예절을 바로 잡고자 아버지가 연극한 것을 알고는 잘못을 빌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집에 가서 다시 전화로 이야기 하자고 돌려 보냈다. 전화를 다시 건 아들은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전화를 하고는 ‘아버지의 말씀이 다 끝났는지’를 확인하고는 아버지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전화를 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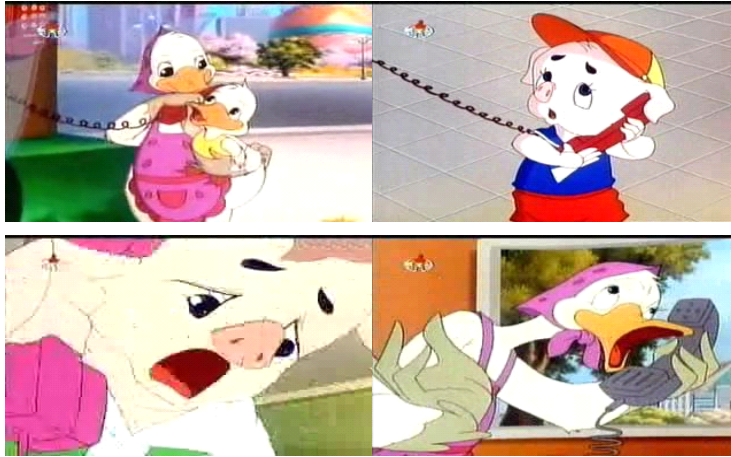


<통화중>은 15분 분량의 토막극으로 전화통화는 요건만 간단하게 하자는 것을 주제로 한다. 자재과에 근무하는 선철은 평소 전화기만 붙들면 이런저런 이야기로 통화를

길게 하였다. 처남의 혼사를 주선하면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처남 혼사문제로 통화를 하였다. 직장에서도 사적인 문제로 통화를 하는 바람에 과장이나 직원들이 전화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발전소 건설장에 나간 과장이 몇 번이나 통화를 하려고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과장이 건설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전화를 하느라고 과장의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 ‘줄전화’를 하느라 사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의 전화 때문에 큰 망신을 당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반성하게 되었다.



<전화소동>은 올바른 전화예절을 주제로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12분 길이의 아동영화이다. 평소 전화예절이 없던 꿀꿀이의 잘못된 전화습관 때문에 온 동네가 한바탕 소동을 치르게 된다는 내용이다. 자신의 잘못된 전화 습관 때문에 일이 꼬여 버린 것도 모르고 꿀꿀이는 할머니가 살균제를 먹고 죽은 줄로 알고는 사방으로 전화를 한다. 꿀꿀이는 전화를 하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도, 누구를 찾는지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그저 할머니가 위독하다,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말만 남기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꿀꿀이 때문에 급기야 온 동네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다. 이 모든 사건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것을 알고는 친구들이 말한 전화예절을 생각하면서 반성한다.



6) 핸드폰 사용 예절 : <철이 아버지였군요>

<철이 아버지였군요>는 텔레비죤극창작단에서 제작한 10분짜리 토막극으로 핸드폰 사용 예절을 주제로 한다. 자신의 나이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핸드폰 착신음을 사용하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버스 안이나 공연장에서 핸드폰을 함부로 사용하던 철이 아버지가 크게 망신을 당하고 나서 핸드폰을 예절바르게 사용할 것을 다짐한다는 줄거리이다.

북한에서도 핸드폰 사용이 대중화되었다. 핸드폰 사용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4월 평북 룡천역 열차폭발 사건을 계기로 내부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2004년 6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였다. 북한이 다시 이동통신통신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였다.²⁴⁾ 이후 핸드폰 사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핸드폰 사용 예절을 강조하는 방송물을 만들어 홍보하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 핸드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일상에서 핸드폰 사용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늘어나는 핸드폰에 대한 올바른 사용은 문화적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 <철이 아버지였군요>는 방송을 통해 핸드폰 사용에 대한 에티켓을 알릴 목적으로 제작된 드라마이다.

24) 룡천역 폭발사고로부터 4년이 지난 2008년 12월 이집트의 통신사인 오라스콤텔레콤홀딩스(OTH)와 북한의 체신성이 75대 25로 투자하여 설립한 고려링크를 통해 3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하였다. 평양에서 2008년 12월부터 3G방식의 휴대전화 사업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12개의 주요 도시와 42개 소도시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IV. 나가는 말

남북의 언어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북의 언어는 상당히 달라졌다. 남북의 언어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남북의 언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언어 차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 정착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처를 받는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하다보면 언어로 인한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통일이 된다고 해도 남북의 언어 차이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다. 언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남북의 언어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될까? 남북의 언어 차이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로 나뉜다. 견해 차이의 핵심은 남북 주민의 언어가 소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이다. 남북의 언어가 차이가 있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라면 언어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의 주민이 서로 소통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남북의 언어 차이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남북의 언어는 소통하기 어려운 정도로 달라졌다. 일상적이고 가벼운 대화는 몰라도 공식적인 언어활동으로 들어가면 그 차이는 크다.

남북의 언어가 달라진 것은 생활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생활하는 환경이 달라지면서 남북의 언어, 언어문화도 달라졌다. 대면적인 접촉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언어는 공식화된 언어, 언어의 예절 중심으로 달라졌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부정적

인 뜻을 에둘러 표현하면 알아듣지 못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려야지”, “좋은 결과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마 잘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쓰시는데 저희가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담당자에게 잘 말해 보겠습니다” 등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북한의 언어는 직설적이다. 말에 대해 상당한 신뢰와 권위를 부여한다. 남한이 문서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라면 북한은 말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이다. 말에 권위가 실려 있고, 말로 통치하는 사회이다. 언어에 권위를 부여하고 실천을 강조한다. 만약 말에 권위가 없다면 북한 사회는 흔들리고 말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최고지도자의 말이다. 북한 주민은 말의 책임과 무게에 익숙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밥을 먹자’고 하였다면 다른 무엇이 아닌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말은 곧 신용이다. 거짓말쟁이는 신용불량자나 다름이 없다. 김병훈의 소설 <빈말은 없다>라는 작품이 있다. 소설제목이기도 하지만 한번 뱉은 말의 진정성과 실천을 강조하는 북한 사회의 언어적 특성을 보여주는 제목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의 언어도 변하고 있다. 시장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일률적인 조직체계가 변화되면서 개인성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고, 남쪽의 대중문화가 유행한 것도 한 요인이다. 핸드폰 사용이 늘면서 존칭도 하대도 아닌 ‘여보 쉬우’하는 말투도 생겨났고, CNC 등의 외래어 사용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작동하는 엄격한 명령체계가 느슨해지면서 말투나 언어생활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남북 언어의 소통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진행되는 언어문화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 우리말 문화유산의 정비와 통합을 위한 과제 -

발 행 인 송 철 의

발 행 일 2015. 8. 14.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http://www.korean.go.kr>

인 쇄 (주)계문사 (02-725-5216)

※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간행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